

‘2028년 개교’ 오등봉초등학교 이달 중 착공

사업자 측, 이번 주 내 건축 허가 전 사전 협의 마무리
건축 허가 후 본관동 공사 시작... 지원동은 11월부터
도교육청 3일부터 ‘공사 기간 적정성 검토 용역’ 착수

오는 2028년 개교 예정인 오등봉초등학교(가칭) 신설 공사가 이달 중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는 현재 오등봉초 건축 허가를 위한 막바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 내로 소방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정도 늦은 것이지만,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달 내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등봉초 신설은 오등봉공원 일대에 민간특례개발로 추진 중인 대단위 아파트 건설 사업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제주시 오라2동 1만4122㎡ 부지에 연면적 6145㎡(지하 1층~지상3층) 규모로 설계됐다.

사업비는 총 331억원으로 이 중 200억원은 사업자가 기부 채납한다. 이는 토지 매입비와 학교 본관동 신축 비용으로, 사업자 측은 오는 11월 해당 토지(학교 용지)의 소유권 먼저 제주도교육청에 넘길 계획이다.

나머지 사업비는 도교육청이 투입한다. 사업자 측이 짓는 본관동 외에 지원동(급식실·체육관) 공사와 개교 준비 등을 교육청이 맡게 된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3일부터 ‘오등봉초 공사 기간 적정성 검토 용역’에 들어갔다. 올해 11월부터

2028년 2월까지로 계획돼 있는 지원동 공사 기간이 적정인지 살피기 위한 용역으로, 4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올해 예산에 오등봉초 공사비 일부를 반영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등봉초 시설사업관리비로 15억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오는 11월부터 지원동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등봉초등학교는 오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하고 있으며 모두 18학급 규모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관광지 음식점 삼겹살 등 원산지 점검 농관원, 피서철 맞아 소비자 즐겨찾는 품목 중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이하 제주농관원)은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광지 밀집 상권에 대해 4일부터 28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삼겹살, 치킨 등 여름 휴가철 도내 주요 해수욕장 및 관광지에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인기 품목 등에 대해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제주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젓소를 국내산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축산물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배달앱 등의 판매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단속현장에서는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도 적극 사용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



제주농관원이 피서철을 맞아 4일부터 삼겹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한라일보 DB

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농관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에는 해수욕장 및 관광지에서 소비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만큼 원산지 위반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관광지에서 농식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 이용 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1588-8112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소범기자

“제주를 기후 변화 연구 중심지로 키운다”

교육부, 대학기초연구소 지원사업에 제주대 선정

제주대학교가 전 세계적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초열대나비 효과연구소’를 새롭게 갖춘다. 기존 조직을 정비해 올해 내 가동을 목표하고 있다.

제주대는 “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사업” 신규 지원 대학에 예비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대학 내 연구소 관리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제주대는 9월부터 2031년 8월까지 5년간 최대 25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제주대는 글로벌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초연결형 연구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열대와 최

전선’인 제주의 지리·환경적 특수성을 반영했다.

제주대가 올해 새롭게 문을 열 ‘초열대나비효과연구소’는 해양, 대기, 지하수, 토양 등을 관측·예측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생태계 구조 변화 등을 규명하고 제주와 비슷한 기후·환경 변화를 경험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춘다. 제주를 기후변화 공동 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양덕순 제주대 총장은 “이번 선정은 제주가 보유한 독특한 자연환경과 제주대의 지구·해양·기후 분야 연구역량을 결합해 국가적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삼양동 갯도리물 정경. 연일 가마솥더위로 제주섬이 달궈지는 가운데 지난 2일 시민과 관광객들이 제주시 삼양동 갯도리물을 찾아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독자 이승철씨 제공

제주, 7월 폭염일 6.5일로 ‘역대 최다’

1973년 이후 가장 많아

지난달 제주의 폭염일수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일은 일 최고기온이 33℃를 넘는 날을 말한다.

3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제주도(제주·서귀포·성산·

고산 4개 지점의 평균)의 7월 폭염일수는 6.5일로, 지난 1973년 이후 역대 가장 많았다.

지점별로는 제주 15일, 서귀포 7일, 성산 3일, 고산 1일로 도내에서도 지점별로 기록 차이가 컸다.

극심한 더위는 8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기·중기 예보상 제주지역은 당분간 적은 양의 소나기 외에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 폭염경보 지역의 경우 35℃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영석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제주의 맛, 그대로.
손끝의 정성, 그대로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얻은 재료,
그리고 제주웰링의 정성 어린 손맛.
몸이 편하고 마음이 쉬어가는 한 끼,
그게 바로 제주웰링입니다.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 725-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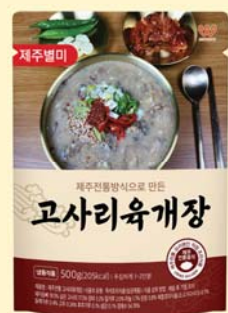
깊고 맑은 제주의 맛이 스며드는 한 끼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신한에코 | 제주 전통방식으로 직접 조리한 식품

따뜻하게 데워 간편하게 집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제주묵국



고사리 육개장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성계전복미역국



제주갈치순살비빔장



전복순살비빔장



소라순살비빔장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